

포교가 내게는 대작불사

“다시는 시은을 가버어 여기지 말라”고 말했다.

또 하루는 일면 스님이 수건과 내의 등을 세탁하면서 마지막으로 헹군 물을 버리는데 은사스님이 혼을 냈다. 일면 스님이 “빨래하고 남은 물 버리는 것이 왜 잘못이냐”고 반문했더니, 은사스님은 “예끼이놈아. 뇌뿔다가 걸레 빨 때 쓰면 되지 않느냐”고 꾸짖었다.

일면 스님이 해인사 강원을 마치고, 군대를 전역한 뒤 만학도로 동국대를 졸업한 뒤에 다시 해인사를 찾아 공양주 소임을 자청했다. “시은을 중히 여기라”는 은사스님의 가르침과 더불어 절에서 대학교 부까지 시켜준 은혜를 깊이 위합이었다.

일면 스님은 눈썹까지 밀고 공양주 소임을 살았다. 남 몰래 대중스님을 신발도 닦는 것을 비롯해 묵인 속에 기도 정진을 병행하며 보은을 통한 구도의 길을 걸었다.

스님은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칠 큰 그릇이 되고 싶다”고 발원했다.

은사스님의 지도도 있었지만 일면 스님은 어릴 적부터 남달랐다. 은사스님이 “선방 가서 도인되거라”고 말하자, 일면 스님은 “스님, 저는 복지·행정의 도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강원 시절, 총무원장이던 청담 스님이 종단분규를 겪던 끝에 “조계종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보고 일면 스님은 생각했다. “청담 스님 같은 도인도 행정에 별 수가 없구나. 종단에는 참선 등 수행으로 도가 트인 큰스님은 많아요. 행정의 도인은 없는 것 같다.”

1년에 16차례 입·퇴원을 할 정도로 간이 좋지 않았던 스님이 건강을 되찾은 것은 스님이 ‘선재’라 이름 붙인 한 뇌사자의 장기기증 덕분이었다. (장기기증자의 신장은 공여자에게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스님은 “간이식을 받은 그 날부터 새 삶을 살고 있다”며 “두 번 사는 인생에 몸을 아끼기 마음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진일보(進一步)하라”고 했던가. 스님이 삶의 끝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만난 새 세상은 깨달음의 세계에서의 그것과 같았다. 그 후 스님은 지금까지 복지·행정의 도인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살아왔다.

군중교구장 시절 일면 스님은 총무원이 군중교구에 지원한 금액의 10배인 25억을 화주했다. 분규 속에 무주공산이던 광동학원의 이사장을 맡아서는 180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확보하는 등 광고고 등을 명문학교로 탈바꿈시켰다. 봉선사 주지 때는 사찰 재정을 공개해 신도들로부터 큰 호응을 끌어내고 사중 재정을 튼튼히 했다. 비좁은 사무실에서 셋방살이를 하던 생명



나눔실천본부는 스님이 이사장이 된 후 10억원에 이르는 사무실을 얻었다. 또, 해인사 승가대학 동문회장 시절에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동문회사무실도 갖췄다.

특히 군중교구장 시절, 일면 스님이 실무자들에게 “형식·위치를 따지지 말고 찾아주는 곳,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다”고 말하고 실천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스님의 원력은 빗물이 흐르는 군막사에 자리한 군법당을 비롯해 개신교인이 사단장인 부대까지 장엄한 군법당을 세게 했다.

일면 스님은 “바른 일, 해야 할 일을 사심 없이 하다 보니 모든 것이 저절로 이뤄졌다”며 “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일을 시작하니 주위 사람들이 발 벗고 나서 도와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오늘날 불교의 문제는 리더십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주인공이고 싶어하고 주불(主佛)이 되고 싶어 하는 탓에 사심이 생기고, 그로 인해 일이 어그러진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한때 총무원장직으로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던 스님이기에 나그네의 앞글은 질문이 갔다.

“스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과 지위는 없어도 남에게 덕망 받는 것 중 하나를 고르라면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러야 딱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삶이지요.”

지극히 세속적인 질문에 출가자다운 답이었다.

이어 일면 스님은 “큰 불사를 하다 보니 큰 덕이 부족한 것 같다”며 “보다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 법을 알리는 것이 내게는 대작불사”라고 말했다.

“성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부터 거지까지 차별 없이 모두 만나 불교의 상식을 전할 능력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면 스님에게 더 큰 능력을 구하는 바람은 있었지만 환경 탓은 없었다. 스님은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리에 구애받지 말고 평소에도 자기 소신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느 위치에 오르기 전까지는 품은 뜻을 감추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과는 상반된 말씀이었다.

일면 스님은 ‘회광반조(回光返照)’하는 삶을 강조했다. “회광반조를 나는 ‘항상 나를 돌이켜 본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을 추스르고 바른 뜻과 행동을 되새겨 봅니다.”

이와 함께 스님이 강조하는 말은 ‘늘 처음처럼’이다.

“‘늘 처음처럼’ 살기 위해 밤낮 출가할 당시를, 은사스님에게 꾸중 들으며 시봉하던 그 시절을, 해인사 공양주 소임 살던 그때를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며 순간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암사 스님의 방에 걸려 있기도 한 이 말은 일면 스님이 ‘회광반조’와 함께 가슴에 품고 자신을 점검하는 경구이다.

“덤으로 사는 인생, 불교의 밑거름이 되고 (주불이 아닌) 후불탱화가 되어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면 스님은 말했다. 지금까지의 치열했던 삶처럼 스님은 법문도 “~하라”는 가르침보다는 “~하겠다”는 말로 솔선하고 있었다.

마조 스님은 건강을 묻는 일주에게 “일면불(日面佛, 수명이 1800세)이기도 하고 월면불(月面佛, 수명이 하루 낮과 밤)이기도 하다”고 해 생사의 경계와 구별이 부질없음을 알렸다.

“주불이 아닌 후불탱화가 되겠다”는 일면 스님의 원력은 일면불(日面佛)이다.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80. 동산반야회 김재일 법사

덕산 김재일 법사는 한국 대중 불교운동의 선구자다.

1949년 전남 영암에서 태어나 20대 청년시절부터 조계사 청년회에서 활동했다.

1982년 무진장스님을 법주로 모시고 동산반야회를 창립, 일반 불자들을 위한 혁명적인 교육에 앞장섰다.

1992년부터 개설한 동산불교 대학에서는 처음에는 교리강좌로부터 시작했으나 점차 불교미술·한문·다도·장례의식·사찰음식·불교음악·무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불교센터로 발전했다.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던 연불 만일회를 결성해 보고 듣는 자는 누구나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포교했다.

특히 제4차 한일불교문화교류



인 불교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000여 명이 넘는 불제자를 배출하고 있다.

또 전국염불만일회는 현재 전국 10개 아미타불 성지에서 전국 염불만일회 결사대회를 병행하고 대아미타사 건립을 추진하는 등 염불정진의 생활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 불교복지사업으로 성북구 장위동 어린이 집과 청소년 독서실 등도 운영하고 있어 불교 복지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김재일 법사의 열반 이후 지금은 그 정신을 안동일 법사가 그 지혜와 열정을 손색없이 계승해 가고 있으며, 동산불교대학은 한국 재가불자의 요람이 될 것이다.

중국의 5조 홍인 스님은 동산에서 법을 배다가 6조 혜능을 만나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의 반야불교를 혜능에게 전해 주었는데 한국의 동산 불교는 석가모니

대중불교운동의 선구자... 교리·문화 등 재가자 교육에 앞장

대회 때부터는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양원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30~40여 명씩 단체 예술공연을 교류해 왔으며, 어린이집·청소년 독서실 등을 운영함으로써 불교복지사업에도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특히 세계이웃돕기운동에 앞장서 인도와 네팔에 시달학원과 농인중·고등학교를 설립해 석가족들이 있어버렸던 옛 조상의 일을 되찾게 했다. 대부분의 석가족들이 힌두교에 몰두하여 석가를 힌두신의 하나인 비슈누신의 제8대 화신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 각 호원에 영어· 일어·한국어로 된 불교 성전을 수십만 권 보급하여 세계 각국에서 여행오는 사람들에게 불교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렇게 한 몸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하다보니 과로와 빈혈로 중

시가행진 할 때는 천태·진각종에 이어 조계종의 거수(巨樹)로써 눈길을 끌었다.

김재일 법사는 언제나 목에는 할렘한 한복을 입고 손에는 연주를 들고 입에서는 아미타불이 그치지 않았다.

그 모습을 지켜본 무심사 보광 스님은 “서방의 일념자가 홀연히 출현하여 동방으로 왔다”고 다시 백련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였다.

무진장 스님은 “이 시대의 보현행자요, 불보살의 화현”이라고 칭찬했다.

동산불교대학은 1982년 3개월 과정의 강좌를 개설하며 문을 열었다. 1987년 8월 학기 입학과정을 개설했으며, 1995년 미국 워싱턴과 LA에 분교를 설치했다.

현재 동산불교대학은 불교미술·불교한문학·다도학·불교장례문화학·사찰음식문화학·한글불교의식 강좌 등 전방위적

부처님의 철저한 깨달음과 달마 대사의 직지인심을 염불만일에 붙여 서울 한복판에서 전하고 있으니 참으로 신성한 일이다.

특히 동산불교대학은 한국불교 신지식 진견도량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양한 교과목에 여러분의 전문교수·스님·법사님들을 끌고오 초청하여 친견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췌록 그 정신이 세계 만방에 널리 퍼져서 해일(海日)처럼 밝아지고 달빛처럼 내외표리(內外表裏)가 없이 비쳐지기를 손 모아 빈다.

민 산에 가물 가물 등불을 보고

승속에 관계없이 법사가 되니

나한의 신통에 보살의 자비

천년 열음이 한꺼번에 녹아나네

업장소멸 법륜대(운장대)안에 금강경 차곡차곡!!!

지금 수미단 좌우 법륜대 안으로 금강경(1,080권)을 봉안하는 불자의 손길이 연이어서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석문의범과 전생록에 기록된 개개인의 전생의 목은 빛을 해탈하기 위하여 사람마다 각각 다른 금강경을 법륜대에 각각 다른 숫자로 봉안하여 직접 돌리기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특징

1. 대한민국 수제품으로 우리나라 초유의 상감청자 법륜대로 탄생하였습니다.
2. 부처님 한 분 한 분 1,080분의 명찰을 특수 투명 케이스에 넣어 걸 수 있으며, 안으로는 1,080권의 금강경(소경책)을 봉안할 수 있어 사찰경제 걱정없는 작은 천불전이 되는 다목적 법륜대입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령리 1156-4 달마사

- 제품명: 순금천불명인법륜대
- 재질: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게: 25kg